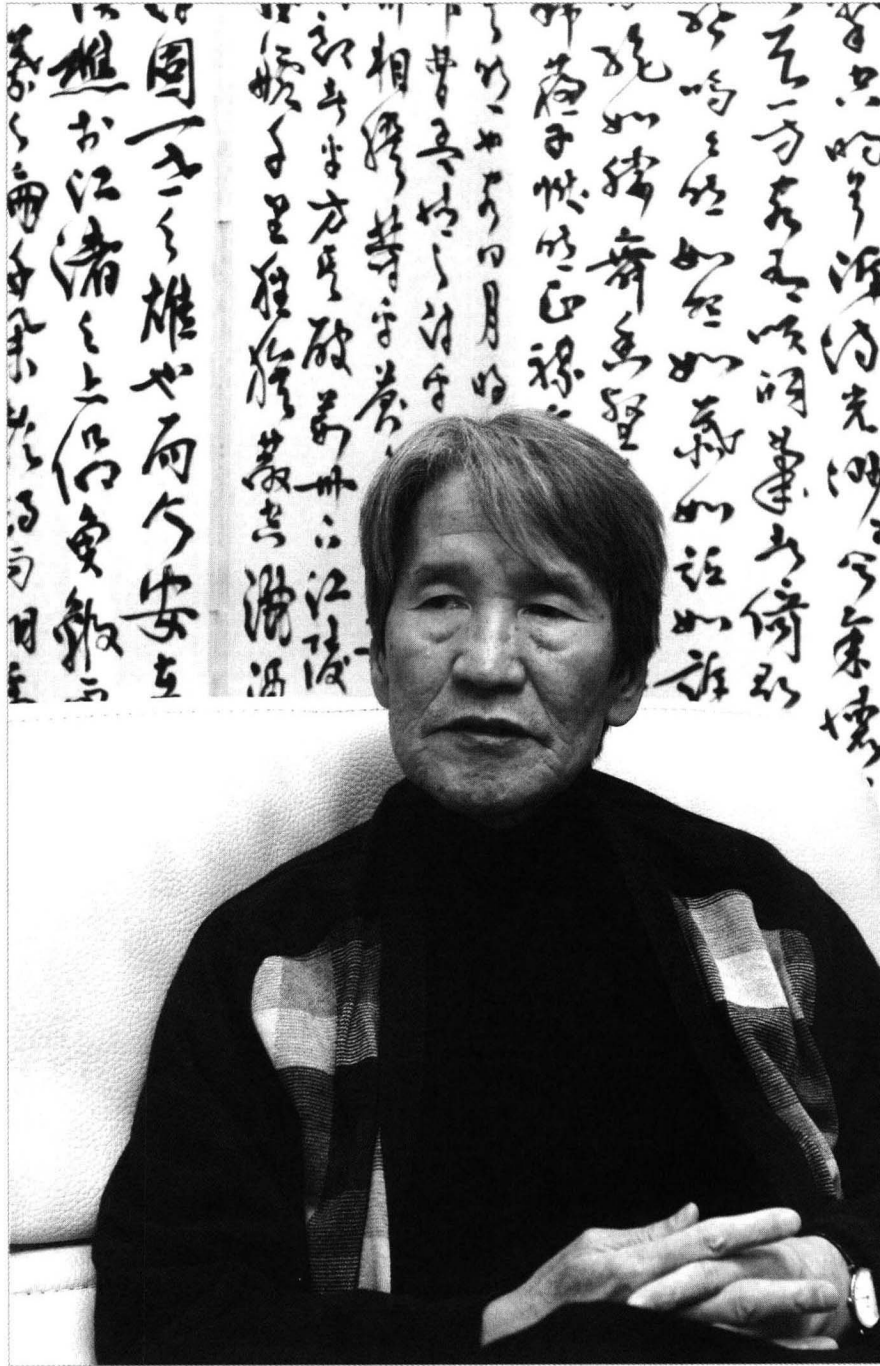


박맹호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IPA 서울총회, 한국출판의 저력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 출판인들과 저작권자 등이 참석하는 '출판계의 올림픽'인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IPA) 총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책의 길 공존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제28차 IPA 서울총회는,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초청에 이어 한국 출판계가 치르게 된 또 하나의 큰 행사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출판계 올림픽'인 IPA 서울총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을 IPA 서울총회 박맹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민음사 회장) 조직위원장에게 들어 보았다.

최근 IPA 서울총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북경도서전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도 IPA 서울총회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북경도서전에 참석해 중국출판공작자협회와 '한중출판교류협정서'를 체결하면서 "2008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중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한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IPA 서울총회도 홍보를 했죠. 서울국제도서전과 IPA 서울총회에 중국이 참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출판공작자협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10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아예 '2008 IPA 서울총회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행사의 개요와 세계 10위권의 출판강국인 한국의 출판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관 리셉션에서는 세계 언론인들과 IPA 관계자와 회원국, 해외 우수 출판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2008년 서울을 꼭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박명호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민음사 회장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명호 조직위원장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1966년 5월 '올곧은 백성의 소리를 담는다'는 뜻으로 민음사를 창립해 40여 년 출판 인생을 걸어오고 있다. <오늘의 시인총서> <오늘의 작가총서> 등을 발간하며 우리 문학에서 근대의 그늘을 걷어내는 데 주력했고, 문학의 고전을 통해 세계와 함께 숨쉬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세계시인선> <세계문학전집> 등을 발간했다. 한글 가로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출판 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은 내용으로서의 책은 물론 매체로서의 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명호 조직위원장은 민음사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2,000여 종이 넘는 방대한 문학과 예술 저작들을 선보였다.

IPA 서울총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한국출판의 위상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출판계는 이미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초대되면서 한국출판의 존재와 위상, 가능성을 이미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경우 남의 잔치에 '주빈'으로 초대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역량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IPA 서울총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축하는 우리 잔치, 즉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판문화는 물론 문화적 역량, 국가적 위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글로벌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출판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2008년 IPA 서울총회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 출판의 새로운 활로라고 언급하셨는데, IPA와 연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정보화 시대에 책 또는 출판은 모든 콘텐츠들의 원천입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만화 등은 모두 책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판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상품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영국이 2세기 동안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군대를 앞세워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상품을 내놓고 세계를 호령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을 수출해 세계를 영향권 아래 둔다는 말이죠. 총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보다 '격조 있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바로 책이며, 출판입니다. 책을 통해, 출판을 통해 '이미지 업'하는 것만큼 격조 높은 것이 또 있을까요? IPA 서울총회는 한국출판의 새로운 좌표를 가늠할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2008년 IPA 서울총회의 주제가 '책의 길 공존의 길'입니다. 한국 출판인들의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IPA와 협의한 것이지만 한국 출판인들의 철학과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동양과 서양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일본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책을 통해 동양과 서양이 상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빈부의 벽을 뛰어넘고, 이데올로기와 체제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또한 아날로그 문명과 디지털 문명의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통한 공존의 길 모색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포용하는 주제로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고 선정하게 된 것이죠.

주제와 관련해서 기초 연설자와 발제자들도 인지도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락 여부가 달려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작가라 할 수 있는 이사벨 아옌데,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과,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는 주제와 잘 부합하는 인물들이죠.

IPA는 4년마다 열리는 출판 올림픽이면서 '문화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97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총회 조직위원장은 당시 황태자였던 지금의 천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2006년 7월 7일 IPA 서울총회의 기대 효과와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한 것을 판정했습니다. IPA 서울총회가 민간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격상된 것이죠.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협조도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총회를 계기로 서울을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회마다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출판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서울의 홍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출판사들이 IPA 서울총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내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출판인들이 아직까지 IPA와 IPA 총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IPA 서울총회가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출판인들은 “내년인데 벌써부터?”라고 반문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니, 그 임기 중에 IP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출판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IPA 홍보에 열을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 IPA 서울총회 기간동안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양서들을 많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IPA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 출판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출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출판을 시작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천지개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물 안 개구리도 통했지만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출판인들도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IPA 서울총회를 계기로 세계 출판인들이 한국과 한국 출판을 새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 발견은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하고 이어 연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 출판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물론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긴 어렵지만 그럴수록 역량 있는 번역자들을 양성해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꼭 노벨문학상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췌록 더 많은 출판인들이 IPA 서울총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해는 모든 출판인들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취재 장동석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국제출판협회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는 1896년 파리에서 창설되었고 2005년 현재 66개국의 78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PA는 각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국가 출판협회들의 모임이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IPA의 설립목적은 회원국 자국 및 국제권리를 존중하며, 방해 받지 않고 작품을 창작하고 배포하는 출판인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 또한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유통의 자유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문맹 퇴치, 도서 및 교육자료 부족 문제 극복하고 문화의 한 분야이자 창조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다.

IPA는 총회(General Assembly), 회장,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는 IPA의 운영 기구로 각 회원국 당 2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에는 두 개의 표결권이 있다. 이 대표들은 현직 출판인들로서 자국의 출판 협회에 의해 임명된다.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대개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 중 개최된다.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16개의 회원 협회들을 선출한다.

회장은 총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은 IPA를 대표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의장을 한다. 부회장들은 IPA의 목적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IPA 산하 분과들과 지역별 출판협회의 사업을 관리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운영절차, 계획, 예산, 정책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총회가 승인한다. 집행위원회에는 현재 표결권을 갖고 있는 15개국 국가 대표가 활동 중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57년 4월에 세계에서 23번째로,